

A study on the Operation Strategies of the Free Major System Based o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Ji Sim Kim*, Kyong Ah Kim**, You Jung Ahn**, Myung Sook Ji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 Seoul, Korea

**Professor,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 Seoul, Korea

***Professor, Dept. of Computer Security Engineering as a Service, Myongji College,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pose effective operational strategies for free majoring programs at colleges introduced alongside innovations in university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192 students enrolled at A College in Seoul.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students' awareness of free majoring programs was low, their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such programs was above average. The benefits of free majoring programs included opportunities for diverse major experiences, aptitude development, and increased confidence in major selection. Conversely, the drawbacks identified were intense competition for preferred majors, difficulties enrolling in popular courses, and shallow learning depth. Additionally, students indicated that programs for exploring aptitudes and competenci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major exploration, were their most pressing need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establishing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free majoring programs.

▶ **Key words:** free major system, Department of Free Majors, undeclared major system, College students, operation strategie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혁신과 함께 도입된 전문대학 자율전공 학부·학과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서울에 소재한 A 전문대학의 재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전공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낮았으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율전공제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전공 경험, 적성 개발, 전공 선택의 자신감 향상 등이 꼽혔다. 반면, 단점으로는 전공 선택 시 경쟁 심화, 인기 강의 수강의 어려움, 학습의 깊이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적성과 역량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공 탐색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전공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 **주제어:** 자율전공제(자유전공제), 자율전공학과(자유전공학과), 무전공, 전문대학생, 운영방안

-
- First Author: Ji Sim Kim, Corresponding Author: Ji Sim Kim
 - *Ji Sim Kim (jjsimkim@mjc.ac.kr),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
 - **Kyong Ah Kim (kakim@mjc.ac.kr),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
 - **You Jung Ahn (yjahn@mjc.ac.kr),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
 - ***Myung Sook Jin (msjin@mjc.ac.kr), Dept. of Computer Security Engineering as a Service, Myongji College
 - Received: 2025. 02. 13, Revised: 2025. 03. 15, Accepted: 2025. 03. 19.

I. Introduction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등의 사회 변화 속에서 노동 시장과 학습자의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실행하며 202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학의 학사제도 유연화를 추진해왔다[1]. 더구나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역량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2]. 이후 이어지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서도 대학 학사를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여 적시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목표에 맞춰 여러 분야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탐색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특정 학과나 전공에 속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분야를 경험한 후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전공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교육부의 수시로 변하는 정책, 재정지원사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대학 교육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3][4].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 속에서 대학은 학사 운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강요받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제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기보다는 입시교육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학과보다는 대학을 보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나 고등학교 때까지 해당 전공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적성에 맞을지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한다[5].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들에게 적성 및 전공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일반대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변화와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전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자율전공제를 도입한 대학은 많지 않았으나 혁신지원사업으로 인해

2025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전문대학들이 자율전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입시를 경험하고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전공과 학과를 모두 경험한 전문대학생의 인식을 바탕으로 자율전공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전공제의 신설 과정을 고찰하고 A 전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제안하였다.

II. Preliminaries

1.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Free Major System

우리나라 대학의 학사구조는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것으로 유럽형과 미국형이 혼합된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학과제와 학부제라는 다른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혼합형의 과도기적 학사구조 체제가 대학 학사구조의 뼈대를 이루게 되었다[6].

1980년대 국내 대학의 학사구조는 학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학과를 세분화하고 증설하여 대학원 과정에서나 가능한 세분화된 유사한 학과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학과 간 폐쇄적 운영에 따라 여러 문제가 초래되었다. 이후 1994년 교육부가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전환을 발표하고 1995년 대학 학사 자율화 등 관련 교육법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이후, 대학들은 앞다투어 학부제 중심으로 전환하였다[7]. 그러나 학부제에서 운영되는 대단위 강의의 낮은 학습 효율,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 선후배간 유대관계 약화, 실용적인 학문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기초학문 분야와 인문학의 위축, 복잡한 학사 행정으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8].

학부제 도입 이후 14~15년이 흐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모집 단위 자율화를 허용하면서 대학들은 다시 학과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동시에 같은 해에 국내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학부 과정의 법학과를 폐지하는 대신 법학과 정원을 활용하여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만들기 시작하였다[9][10].

이 과정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정착되기도 전에 다른 패러다임이 도입되어 과도기적이고 혼합적인 학사구조 체제가 형성되었다. 1학년 학부대학, 기초교양교육 전담 행정기구, 자율전공학부, 다중전공제 등 일관성 없는 학제들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6][9].

한국의 자율전공제는 1995년 한동대학교가 개교와 함께 전면적인 자율전공제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확산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된 대학들은 대부분 주요 종합대학이나 거점국립대학이었으므로, 이러한 대학들에서 "어느 전공학과로든 진학할 수 있다"는 자율전공제의 매력에 학생들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파급력이 증대되었다.

이후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자율전공제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이 발표되자 대학들은 반발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를 수용하면서 대학의 혁신방향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3].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Previous Studies on the Free Major System

자율전공제는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을 입학시킨 후 일정 기간동안 전공 탐색 기간을 가진 다음 전공을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전공자율선택제로 명명했으나 용어는 자율전공제, 자유전공학부, 자율설계전공, 전공자율선택, 무전공제, 무전공 입학 등 매우 다양하다. 대학마다 명칭과 운영방법도 상이하지만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9][10]. 구체적으로는 전공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탐구와 고민을 통한 의사표현의 실현이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10-12].

일반대학의 경우 자율전공제는 학부 1학년 때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며 전공을 탐색한 후 2학년 때 전공학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13]. 혹은 4학년까지 학교가 허용하는 모든 수강과목을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가 자율전공제라면 후자는 자율설계전공제로 지칭될 수 있다. 자율전공제의 가장 큰 우려는 인기 많은 전공학과로의 편중이다[12-14]. 해당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은 학과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인기 없는 학과는 미달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선택자가 쏠리는 전공에서 선발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학생들 역시 입학 시 전공학과를 바로 선택하여 진학한 학생보다 1년 늦게 전공학과에 진학한다면 학업을 따라가는 데 대한 어려움, 학과에 대한 낮은 소속감, 학우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중도에 탈락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15-18].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공탐색 기간인 1학년에서 필수교양으로 선정하여 학생이 충분히 학교와 전공, 교육과정,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 이를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알려주어야 한다[5][10][13]. 또한 학생이 세운 목표에 교육기관이 호응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전공의 학생에게 뒤쳐질 수 있는 자율전공 학부·학과 학생의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

반면, 자율전공제의 장점도 존재한다. 한 질적 연구에서 무전공 입학자들은 혼란감과 부담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해 자신과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17]. 또한 학습자의 학습 동기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웠던 획일적인 교육을 자율전공제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3]. 그리고 직업세계가 급변하는 미래에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요구되는데 자율전공제를 통해 이러한 학습역량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10][12][14][19][20].

전문대학에서는 일반대학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함께 2·3년제 중심의 학제에서 전공탐색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존재한다. 또한 학생들이 전공학과로 진학한 후에도 앞서 서술한 문제들을 보다 더 격렬하게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문헌 및 사례조사나 정책과 제도 제안 등에 국한되어 있다. 한 선행연구는 미국 전문대학과 한국 일반대학의 자유선택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5]. 미국의 리버럴 아트(liberal arts) 컬리지 중 하나인 에머스트 컬리지(Amherst college)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유교양교육에 더하여 한국의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실천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한국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았다. 미국은 자유전공학부에서 사회과학, 바이오·생명과학, 수학과, 통계학을 더 선택하였으나, 한국에서는 경제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순으로서 상대적으로 더 실용적인 학문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버럴 아트 컬리지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기초학문으로 구성된 학부 중심 대학을 의미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학부교육은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반면, 직업적 전문성은 대학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미국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 때문으로도 보인다[21]. 한편, 다른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은 자율전공제를 입학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3명과 학생 4명을 면담하여, 자유전공제의 의의로서 기초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적성 및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제도의 도입이 인문사회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체계적 교육과정이 부재하며, 학생관리와 상담이라는 교수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인문사회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학생 층원이 인문사회계열의 어려움이 더 커져 폐과가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남는 교수들은 자유전공학부로 흡수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문학의 위기도 함께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다[3][5][22].

또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문헌과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특히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10년 이상 운영해 온 2개 대학을 비교·분석하였다[10]. 이를 통해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중심으로 운영 요소를 제시하였다. 교육목표 요소로서 인재상, 지식·기술·역량을, 교육과정으로서 공통 교양 이수, 학문에 대한 이해, 전공 설계 세미나 등을, 운영방법으로서 학과전담 지도교수, 졸업요건 등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국·공립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과 체계, 전공 탐색과 선택의 자율성을 위한 제도를 검토하여 자율전공제의 제도적 측면을 제안하였다[9][14]. 국·공립대학교의 대학요람,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공을 정하기 전에 기초교양 등을 수강하도록 하여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 선행연구는 자율전공 학부·학과 1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질적사례를 수행하고 주제를 범주화하여 무전공 입학 대학생들의 경험과 삶의 의미를 파악하였다[23]. 범주화된 주제는 ‘혼돈의 마음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나라는 존재가 삶의 중심이 되어’, ‘관계와 소속감의 황무지에 서서’, ‘자유롭게 전공탐색 과정에서 세상을 알아가며’, ‘나의 현재와 미래 속에 그리는 비전’, ‘자율전공 학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라는 여섯 가지 주제이다. 일례로 ‘관계와 소속감의 황무지에 서서’는 고등학교 때까지와는 다른 수업과 생활에서 오는 관계나 소속감의 문제와 함께 소속전공이 없고 추후 전공학과를 선택했을 때 학우와의 거리감에서 오는 문제 등의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듯, 선행연구는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 융합을 통해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미국의 자율전공제의 취지에서 비롯된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일반대학에서 자율전공제를 도입한 체계나 제도 중심의 고찰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용주의 전공을 보다 추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그리고 학생의 실제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에서 자율전공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찾기는 힘들다. 특히 자율전공제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을 분석한 한 실증적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 실제적인 수

요자인 고등학생이나 이미 입시를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전공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입시를 경험하고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전공학과에 재학 중인 전문대학생의 인식을 바탕으로 자율전공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Methods and Results

1. Participants

서울에 소재한 A 전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23년 11월에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192명의 응답자가 참여하였다[24].

응답자의 계열별, 학년별, 성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학부별로는 공학·정보학부와 어문·교육학부가 동일한 응답률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60명, 31.3%), 경영·사회학부(41명, 21.4%), 예술·건강학부(16명, 8.3%), 미래융합학부(15명, 7.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가장 많았으며(137명, 71.4%), 다음 순으로는 2학년(53명, 27.6%), 전공심화과정(2명, 1.0%)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99명, 51.6%)과 여학생(93명, 48.4%)이 유사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Table 1. Respondent Distribution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School	School of Engineering & Information Science	60	31.3
	Schoo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41	21.4
	School of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60	31.3
	School of Arts and Health Care	16	8.3
	General Education	15	7.8
	Subtotal	192	100
Academic Year	1	137	71.4
	2	53	27.6
	3	0	0
	Advanced Major Program	2	1.0
	Subtotal	192	100
Gender	Male	99	51.6
	Female	93	48.4
	Subtotal	192	100

2. Methods and Tools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1차 완성한 후, 교육공학자 3인이 설문을 검토하고 재학생 3명에게 이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와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타당도를 향상하였다.

설문 문항으로서,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장·단점,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대한 선택의사, 선택·미선택 이유, 전공탐색기간,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희망 운영방법 및 지원사항을 조사하는 20개의 상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1$ 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Results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A 전문대학 재학생의 인지도는 2.58점(SD = 1.200)으로서 낮은 경로를 나타냈다.

Table 2. Awareness and Necessity of free Majoring Programs

(n = 192)		
Awareness and Necessity of free Majoring Programs	M	SD
Awareness of Free Majoring Programs	2.58	1.200
Necessity of Free Majoring Programs	3.51	.816

Fig 1에서 상세히 살펴보면, 재학생들은 자율전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7명, 34.9%), ‘전혀 모른다’(38명, 19.8%), ‘들어봤고 조금은 알고 있다’(38명, 19.8%)가 동일 응답 수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 순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35명, 18.2%), ‘매우 잘 알고 있다’(14명, 7.3%) 순이었다.

반면, Table 2에서와 같이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3.51(SD = .816)점으로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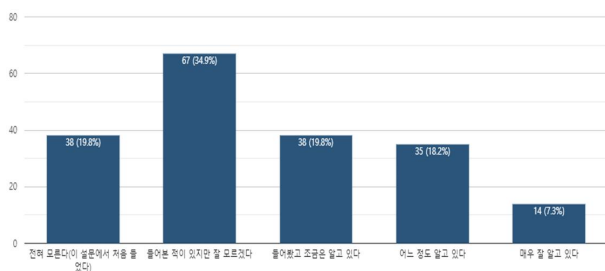


Fig. 1. Response results regarding awareness of Free Majoring Programs

Table 3과 같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장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M = 3.78, SD = .760)’는 항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학생들과 여러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M = 3.76, SD = .852)’, ‘전공 탐색과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M = 3.74, SD = .779)’, ‘대학 입학 시 학과 선택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감소할 것 같다(M = 3.63, SD = .887)’, ‘전공 선택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M = 3.62, SD = .814)’의 순이었다.

Table 3. Advantages of Free Majoring Programs

(n = 192)		
Advantages of Free Majoring Programs	M	SD
1. Helps in exploring majors and developing aptitude.	3.74	.779
2. Provide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various majors.	3.78	.760
3. Enables sharing diverse experiences with students.	3.76	.852
4. Increases confidence in choosing a major.	3.62	.814
5. Reduces difficulty and anxiety in choosing a major upon university admission.	3.63	.887

Table 4와 같이, 재학생들은 자율전공 학부·학과의 단점에 대해서 ‘희망하는 전공 선택 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M = 3.76, SD = .928)’를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인기 많은 수업을 수강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다(M = 3.67, SD = 1.012)’, ‘다양한 전공을 공부할 수 있으나 학습의 깊이가 얕을 것 같다(M = 3.46, SD = .940)’를 선택했다. 이 외에도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다(M = 3.17, SD = .926)’, ‘다른 학부·학과에 비해 소속감이 낮을 것 같다(M = 3.13, SD = 1.015)’, ‘나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어려울 것 같다(M = 3.10, SD = .955)’,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해당 학과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M = 3.03, SD = .924)’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4. Disadvantages of Free Majoring Programs
(n = 192)

Disadvantages of Free Majoring Programs	M	SD
1. There may not be sufficient time to explore majors.	3.17	.926
2. Studying various majors, but the depth of learning might be shallow.	3.46	.940
3. It might be difficult to enroll in popular courses.	3.67	1.012
4. Competition could be intense when selecting a desired major.	3.76	.928
5. It may be challenging to adapt to the department after selecting a desired major.	3.03	.924
6. It may be difficult to design your own curriculum (self-designed major).	3.10	.955
7. A lower sense of belonging compared to other departments might be felt.	3.13	1.015

Table 5와 같이, 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선택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재학생들은 ‘있다’를 응답한 비율과(81명, 42.2%), ‘잘 모르겠다’를 응답한 비율(79명, 41.1%)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6.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2명, 16.7%).

Table 5. Intent to Choose Free Majoring Programs
(n = 192)

Intent to Choose Free Majoring Programs	Frequency	Percentage (%)
Yes	81	42.2
No	32	16.7
Not sure	79	41.1

Table 6과 같이,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선택하겠다고 한 응답자들의 순위응답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아직 희망하는 전공분야를 결정하지 못해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79)’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구하고 싶어서(63)’, ‘나의 적성을 좀 더 찾고 싶어서(39)’, ‘희망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서 일단 입학한 후 희망학문에 다시 진학하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모든 학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깊은 학습이 가능하여서라고 응답한 의견도 있었다.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들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전공학과·학부를 늦게 결정할 경우 그 학과의 전공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36)’를 선택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able 6. Reasons for Choosing Free Majoring Programs

Reasons for Choosing Free Majoring Programs	Cumulative Weight	Frequency
1. Because the competition rate for the desired department is high, I want to enroll first and then transfer to the desired department later.	32	20
2. To have time to explore because I have not yet decided on my desired field of study.	79	45
3. To explore various academic fields.	63	38
4. To better understand my own aptitude.	39	30
etc	3	2
Total	216	135

두 번째로는 ‘자율전공 학부·학과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 학과·학부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를 이유로 선택하였으며(24) ‘전공학과·학부를 늦게 결정할 경우 그 학과에서의 교우관계 등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14)’, ‘대학 입학 시 바로 전공을 결정하고 싶어서(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주관식 응답으로는 자율전공 학부·학과가 무엇인지 몰라서, 학우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서는 의견이 있었다.

Table 7. Reasons for Not Choosing Free Majoring Programs

Reasons for Not Choosing Free Majoring Programs	Cumulative Weight	Frequency
1. Because I want to decide on a major immediately upon university admission.	7	4
2. Because it may be difficult to enter the desired department or major within Free Majoring Programs.	24	16
3. Because it may be challenging to keep up with the studies of a department if the major is decided late.	36	22
4. Because adapting to relationships and other aspects of the department may be difficult if the major is decided late.	14	8
etc	3	2
Total	84	52

Table 8과 같이,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진학한다면 전공을 결정하기까지 전공탐색 기간으로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1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91명, 47.4%). 다음으로 ‘한 학기’를 선택한 응답자 수가 많았으며(52명, 27.1%)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좋겠다’에 대한 응답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9명, 25.5%).

Table 8. Period of Major Exploration

(n = 192)

Period of Major Exploration	Frequency	Percentage (%)
One semester	52	27.1
One year	91	47.4
No fixed period preferred	49	25.5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진학할 경우 희망하는 운영 방법을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대학에 입학하여 일정 기간 전공을 탐색한 후, 전공·학과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학과로 진학'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 두 번째로는 '학부에 입학하여 일정 기간 학부 내 여러 학과들을 탐색한 후, 동일한 학부 내에서 원하는 학과로 전공 선택'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139).

Table 9. Method of Operating Free Majoring Programs

Method of Operating Free Majoring Programs	Cumulative Weight	Frequency
1. Explore majors for a certain period after admission and transition to the desired department without restrictions.	202	111
2. Explore various departments within the school for a certain period after admission and choose a desired department within the same school.	139	90
3. Explore several sub-majors within a department for a certain period after admission and choose a desired sub-major within the same department.	90	64
4. Explore majors for a certain period after admission and design and follow a personalized curriculum tailored to career goals without being affiliated with specific faculties or departments	87	61
Total	518	326

이 외에, '학과에 입학하여 일정 기간 학과 내 세부 전공들을 탐색한 후, 동일한 학과 내에서 원하는 세부전공 선택(90)', '대학에 입학하여 일정 기간 전공을 탐색한 후, 특정 학부·학과에 소속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나만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학습하는 형태(87)'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10과 같이, 자율전공 학부·학과에서 성공적으로 학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지원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1, 2 순위로 응답한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나의 적성과 역량 탐색 프로그램(164)'이 가장 많았다. 다음 순으로는 '다양한 전공 탐색 수업이나 프로그램(156)'을 지원받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는 '각 직업군에 필요한 역량 및 기술 정보(110)',

'희망 전공학과와 전공교수와의 상담(66)', '자율전공 학부·학과 지도교수와의 전공 결정 상담(43)' 순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Services for Free Majoring Programs

Services for Free Majoring Programs	Cumulative Weight	Frequency
1. Programs to explore personal aptitude and capabilities	164	96
2. Classes or programs for exploring various majors	156	101
3. Information on skills and competencies required for each career group	110	75
4. Consultations with professors of the desired major	66	45
5. Consultations with academic advisors for Free Majoring Programs	43	30
Total	539	347

IV. Conclusions

본 연구 결과, 전문대학 재학생의 자율전공제에 대한 인지도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 재학생들은 자율전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율전공제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학생들과 여러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전공 탐색과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 단점으로는 희망하는 전공 선택 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인기 많은 수업을 수강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양한 전공을 공부할 수 있으나 학습의 깊이가 얕을 것 같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자율전공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학생들이 예상하는 장점은 다양한 전공 경험이나 학생들과의 경험 공유,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점들을 꼽았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전공 선택 시의 치열한 경쟁률, 수강신청의 어려움 등을 염려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5-17].

한편, 자율전공제를 선택할 의사가 있는 학생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약 40% 정도로 유사했으며 선택 의사가 없는 학생은 16.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택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아직 희망하는 전공분야를 결정하지 못해서 탐색해 보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선택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전공학과나 학부를 늦게 결정하면 그 학과의 전공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 입시와 대학에서 학업을 모두 경험한 전문대학생은 자율전공 학부·학과에 대한 선택 의사가 큰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본인이 진학해야 할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동시에 전공을 늦게 선택하는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율전공제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전공 탐색 기간, 전공 선택 범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전공을 탐색하는 기간으로는 1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공 선택 범위에 대해서는 전공이나 학과 제한 없이 원하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나의 적성과 역량 탐색'과 '다양한 전공 탐색'을 위한 수업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가장 희망했다.

학습자라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전공을 충분히 탐색하기에 1년이 적절할지 모른다. 그러나 2·3학년의 학제를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자율전공 학부·학과 재학기간 1년은 응답자들이 전공학과를 선택한 후에 예측하는 단점이나 어려움과 상충한다.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1년간 운영할 경우, 전공 탐색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 '희망하는 전공학과·학부를 늦게 결정하게 되므로 그 학과의 전공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자율전공 학부·학과를 한 학기로 운영한다면 전공 탐색 시간이 다소 부족해질 것이나, 학생이 선택한 전공학과에서의 학업 기간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의 학제를 고려했을 때 한 학기가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다. 또한 자율전공 학부·학과생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예비대학 등을 통해 전공기초나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학과 등을 미리 조사하고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나 상담을 일찍이 시작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다 더 적합한 선택이다. 다양한 선택과 융합을 통해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교양교육을 강조한 미국의 자율전공제와 달리, 우리나라 전문대학에서는 집중된 직업교육이 요구된다. 대규모의 종합대학과 달리, 소규모의 장점을 이용하여 전문대학에서는 자율전공 학부·학과생에 대한 긴밀하면서도 밀착된 진로 탐색과 관련된 관리와 지원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단순한 선택 과목이나 비교과가 아닌 필수과목을 통해 전공탐색에 요구되는 기초 교과목, 전공학과의 교수진 및 선배와의 상담이나 멘토링 등을 필수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율전공제는 자율전공 학부·학과가 단독 운영만으로 성공하기는 힘들다. 자율전공제는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전문대학의 교수진은 특정 전공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다학문적 지도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 간 교수진을 공유하거나, 기존 교수진에게 융합적 사고와 멘토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공 선택 범위에 대해 고려해보면 특정 학부 내의 학과 중에 전공 선택하는 방법과 대학 내의 전체 학과에서 전공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지만, 정원, 강의실, 교수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학 본부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갖 추가가 쉽지는 않다.

자율전공제의 행정지원체계 구성시 고려 사항으로는 행정지원 전담 부서와 전담 교수진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과정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내에 자율전공 학부·학과 학생들의 진로 및 전공 선택을 위한 대학 전체 학과의 전공이나 정보를 소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자율전공 학부·학과 교수와의 상담뿐만 아니라 전공학과 교수와의 상담도 필수적이며 필요할 경우 선 이수 전공 교과목 지정 등 학과 선택 조건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과마다 전담교원이 필요하다. 또한 입학 전형에서 실기평가가 필요한 학과에서는 평가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전공 선택 범위를 특정 학부로 제한하고 해당 학부 내에서 전공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도상의 운영 방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는 학부 내의 학과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특정 인기 학과에 학생들의 지원이 편중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원과 실습 기자재, 실습실과 강의실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 실행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율전공 학부·학과에서 희망 전공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은 희망 학과를 선택한 후에도 학과 적응이나 전공 학업 진행에 어려움을 야기시켜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전공제 설계 시부터 대학의 체계와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역할을 맡은 교직원이 얼마나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직결된다. 자율전공제를 단순히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를 늦추는 제도쯤으로 여기고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고민과 자율전공제에 대해 느끼는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중도탈락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나 직원들이 노력하여 전공학과를 선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공학과에 대한 적응과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심리적으로 지원하면서 학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학생들의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재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자율 전공제의 운영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전문대학의 자율 전공제가 기존에 운영 중인 전공과정과 잘 결합되고 학생들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향후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운영모델을 제안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 전공 학부·학과를 입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학과를 선택한 후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Myongji College Research Grant.

REFERENCES

- [1] O. K. Jo, "Status and Challenges of Flexibilization of University Academic System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
- [2] Ministry of Education, "2023 University and College Innovation Support Project and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Plan," <https://if-blog.tistory.com/14023>
- [3] J. S. Nam,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Operation of the Major-Free Syste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8, No.5, pp.85-97, October, 2024. DOI:10.46392/kjge.2024.18.5.85
- [4] Y. R. Yoo, and Y. H. Son.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university departments and major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3.
- [5] Y. K. Min, "Exploring the Potential and Limits of the Free Major System in Korean Universit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Summer Academic Conference, pp.105-119, Online, Korea, August, 2021.
- [6] M. K. Kang, and J. H. Kim, "The Task of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General Education in the Changing Academic Structure of Korean Universit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1, No.2, pp.327-361, September, 2010. DOI:10.15753/aje.2010.11.2.014
- [7] H. C. Lee, "University Reform and the Challenges of Implementing the College System," CSAM(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Vol.3, No.1, pp.267-276, January, 1996.
- [8] H. S. Yoo,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College System,"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0.
- [9] D. H. Son, "'Free Major' as a Leading Model for Univers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2, No.2, pp.43-78, April, 2008.
- [10] E. J. Oh, "Studies on the Current Situations and Management of the Liberal Arts Departm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3, pp.183-191, March, 2019. DOI: 10.21742/AJMAHS.2019.03.17
- [11] H. Y. Park, and K. Y. Park,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aturity, Satisfaction with Major Selection Program, and Departmental Satisfaction among Students in the Liberal Arts Depar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4, No.4, pp.663-672, February, 2024. DOI:10.22251/jlcci.2024.24.4.663
- [12] O. H. Yoon, "Exploring a Settlement Plan for the Major-Free (Undeclared) Admiss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4, No.6, pp.461-471, June, 2024. DOI:10.5392/JKCA.2024.24.06.461
- [13] D. J. Ha, "Autonomous Major and Future University Education in the AI Era," Citizen and Humanities, No.46, pp.101-127, 2024. DOI:10.22842/kgucfh.2024.46.101
- [14] J. H. Jeon, "A Study on the Liberal Arts Education System and Major Free Choice System of Domestic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Journal of Culture and Convergence, Vol.45, No.8, pp.153-173, August 2023. DOI: 10.33645/cnc.2023.08.45.08.153
- [15] S. J. Oh, "What is Needed for the Success of the 'No Major on Admission' System in Universities,"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807>.
- [16] J. H. Kwon, "An autoethnography about the working experience of a new professor at a local national university's non-major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innovation proc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4, No.20, pp.575-595, October, 2024. DOI:10.22251/jlcci.2024.24.20.575
- [17] H. S. Kim, and J. H. Kwon, "The first semester of a university student in undeclared major, balancing between confusion and certain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4, No.19, pp.567-579, October, 2024. DOI:10.22251/jlcci.2024.24.19.567
- [18] J. J. Jeon, "Research on the Main Contents and Methods of the Autonomous Major Selection System ('Undeclared Major' System)," Journal of 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13, No.3, pp.511-543, 2024. DOI:10.30974/kaice.2024.13.3.22

- [19] D. J. Ha, "Independent University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Vol.81, No.8, pp.347-358, August, 2022. DOI:10.35955/JCH.2022.08.81.347
- [20] G. Y. Park, and Y. H. Joo, "Exploring prerequisite for stabl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Educational Politics*, Vol.28, No.4, pp.29-57, December, 2021. DOI:10.52183/KSPE.2021.28.4.29
- [21] Scott, W. R. (2015). "Higher Education in America: Multiple Field Perspectives." pp.19-38, *Remaking College* edited by Michael W. Kirst & Mitchell L. Stevens.
- [22] J. S. Kim, and B. S. Lee, "Critical Review of the Admission System without Declared Majors based on Institutional Autonom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Ideas*, Vol.38, No.3, pp.27-51, August, 2024. DOI:10.17283/jkedi.2024.38.3.27
- [23] J. H. Jeon, and H. S. Kim,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university life of university students entering a non-major department," *Journal of Educational Culture*, Vol.30, No.4, pp.303-324, August, 2024. DOI:10.24159/joec.2024.30.4.303
- [24] Y. J. Ahn, K. A. Kim, J. S. Kim and M. S. Jin, "Research on Autonomous Major Models Suitable for our College", Vol. 2023, No. 8, *Research Report of Myongji College*, January, 2024.

Authors



Ji Sim Kim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Educational Technology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1997, 2001, and 2009,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t Myongji College, Seoul, Korea, in 2017. She is currently a teaching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t Myongji College. She is interested in mobile computing and computer education.



Kyong Ah Kim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1990, 1992 and 2001,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t Myongji College, Seoul, Korea, in 2002.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t Myongji College. She is interested in programming languages and computer education.



You Jung Ahn received the B.S. and M.S.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1991 and 1995. She received Ph.D. degrees in Information & Computer Engineering from

Hongik University in 2000. Dr. Ahn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t Myongji College, Seoul, Korea, in 2001. She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at this college up to now. She is interested in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s and computer education.



Myung Sook Jin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electronic engineering from Korea University, Korea, in 1990, 1992 and 1997, respectively. Dr. Jin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at Myongji College, Seoul, Korea, in 2001.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et Security Engineering as a Service, Myongji College. She is interested in internet and mobile computing, and programming education.